



# 정교회 주보

##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님 무덤 곁의 향유 가진 여인들

향유 가진 여인 주일 / 성 야고보 사도

제2조 /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톨 성찬예배에서

- 제1,2,3 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2조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향유 가진 여인 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삼성송 / 15. 성가 악보 44
- 사도경 : 사도행전 6,1-7 / 252. 봉독서 42
-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 98. B 14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성 뽀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 “자녀 교육에 대해 부모에게 전하는 조언”

“돈이 양심을 지배한다.”는 말을 못 들어 보셨습니까?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특히, 뇌물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바른 양심으로 물질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적어도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다른 데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유다는 온전 30닢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돈에 욕심을 낼 때 돈이 얼마나 악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만들까요? 바로 유다 같은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만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 쌓고 있는 재물을 다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며, 잘못 배운 자녀들은 그 재물을 잘 관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색과 탐욕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부모들은 그것을 자기 품에 안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 자녀들은 그 유산을 물려받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그것을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되십시오”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은 당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의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가 두 번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동의나 선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어린 시절입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은 자발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린이의 마음으로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려 할 때 누리는 어린 시절로서,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두 번째의 자발적인 어린 시절을 꼭 ‘거쳐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오 18, 3) 즉, 우리가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인 차원에서 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아이들은 아직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악의가 없고 순수한 아이들을 맑으라는 것입니다. 성 사도 바울로께서도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고린토 전 14, 20)

성 니콜라스 벨리미로비츠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은 믿음, 순종, 용서라는 세 개의 위대한 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인은 말씀하시길 : “아이는 부모가 어떤 답변을 하던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

고, 부모를 믿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뜻을 부모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아이는 싸우고 말썽을 일으키고 혼나고 벌을 받지만, 곧바로 용서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 순종, 용서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다시 아이처럼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극한 겸손으로 무덤에 내려가신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성 니콜라스 벨리미로비츠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 거룩한 순종, 조건 없는 용서라는 이 세 가지 덕을 닦아야 한다고 깨우쳐주십니다. 이것은 죽음의 병인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주는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기심은 사람을 사나워지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이 지닌 빛과 순수한 아름다움을 잃게 하는 병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작품인 ‘카라마조프가(家)의 형제들’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을 다시 순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이와 같은 영혼이 되어야 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대주교

## 성 이삭 시리아인 VII

###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한번은 이삭 성인에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하고 묻자, 성인이 대답하셨다.

“그것은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 새들, 동물들, 악마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열렬한 애정을 갖는 마음이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마음을 사로잡는 뜨거운 동정심과 측은지심 때문에, 연민의 정을 품은 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흐른다. 그리고 깊은 자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우주만물 가운데 어떤 것 하나가 겪는 아주 작은 상처나 고통에 대해서도 듣거나 바라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성이 없는 동물들과 진리를 거스르는 적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보호받고 자비를 힘입을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다.”

“그는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 속 용량을 넘어서도록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쏟아 부어진 엄청난 애정과 동정심, 연민의 결과로써 파충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 [☞ 아래]

☞ 이삭 성인은 오래도록 사막에 살았으며, 따라서 아마도 진짜 파충류를 만났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아타나시아

##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5월 1일에 축일을 맞이하는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성한 봉직인 사목을 통하여 하느님 교회의 양 떼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소식



### 대교구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지난 4월 23일 토마 주일에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주임사제셨던 바울로 권언건 신부께서 안식하였습니다. 바울로 신부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작년 말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랜 인내의 싸움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부산의 병원에서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과 여러 신부님들과 울산, 전주, 부산, 서울에서 온 많은 신자들이 함께 뜨리스아기온 예식을 드렸습니다. 25 일에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영결식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고 바울로 권언건 신부님께서 의롭고 복된 안식을 맞이하셨다고 강조하시고, 비록 슬픈 순간이지만 또한 희망과 기쁨을 간직하자고 권면하시면서 유족들과 신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특히, 대주교님께서는 고 바울로 신부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를 보여주심으로써 심한 고통과 병고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며, 또한 모든 이들을 관대하게 받아주시는 온유한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셨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신부님께서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한 형제처럼 사랑하십시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신자들은 함께 모든 일을 시작하였듯이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형제 여러분, 영적 가정인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주교님께서는 세계총대주교님께서도 고 바울로 신부님의 안식에 즈음하여 유족과 울산 성당 신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부활의 희망을 함께 품고 이겨가자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뒤 용미리 교회묘지로 안장하기 위해 신부님들과 많은 신자들이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용미리 교회묘지에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신부님들, 그리고 서울과 인천의 많은 신자들이 고 바울로 권언건 신부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 그리고 여러 신부님들이 함께 뜨리스아기온 의식과 매장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다시 한번 고 바울로 권언건 신부님의 복된 안식에 대해 말씀해주시면서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고 바울로 권언건 신부님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주간 예식

■ 5월 5일(금) 성 이리니 대순교자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http://www.orthodoxkorea.org)